



05

돈관리기술

◎ 돈관리란 무엇일까?

1. 돈관리 이야기
2. 나는 내 돈의 주인인가?

◎ 돈의 세상을 알자(1)

3. 소비 항목 익히기
4. 우리집 소비
5. 소비의 결정원칙

◎ 자립 후 살림살이

6. 아바타 미래설계
7. 나의 평생 미래설계
8. 나의 중기 미래설계
9. 나의 단기 미래설계

◎ 돈의 세상을 알자(1)

10. 통장 만들기
11. 나를 위한 보호장치
12. 돈관리의 또다른 모습
13. 늘리기와 지키기

◎ 365일 돈쓰기 체험

14. 나의 지출 습관은?
지출 종류
16. 지출 결정
17. 행복한 결산

「자립준비프로그램」 돈관리기술에서는 현명한 소비생활방법과 통장개설 및 인터넷뱅킹 활용 등의 지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사회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신용카드' 부분은 자립을 앞둔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하는 중요한 내용이지요.

돈관리기술에서는 단계별로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담고 있습니다.

Level 1	Level 2	Level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돈관리 이야기 · 나는 내 돈의 주인인가? · 소비 항목 익히기 · 우리집 소비 · 소비의 결정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바타 미래설계 · 나의 평생 미래설계 · 나의 중기 미래설계 · 나의 단기 미래설계 · 통장 만들기 · 나를 위한 보호장치 · 돈관리의 또다른 모습 · 늘리기와 지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의 지출 습관은? · 기간과 의무에 따른 지출 종류 · 지출 결정 · 행복한 결산



사전평가

다음의 문항은 여러분의 자립준비정도를 조사하기 위한 자립준비척도 문항 중 돈관리기술 영역입니다. 잘 읽고 현재 자신의 상태에 "V"표 하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한 달 동안 쓰는 돈의 수입과 지출을 파악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2. 용돈기입장을 사용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3. 공과금에 대하여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4. 휴대폰을 쓸 경우 요금을 내야하는 책임이 있으며, 요금을 연체했을 경우 받는 불이익에 대해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5. 본인의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6. 인터넷 뱅킹을 사용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7. 자립을 위한 저축액(디딤씨앗통장, 후원금, 용돈 등)을 매월 확인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8. 19세부터 건강보험 납부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1. 돈관리 이야기

다솜이와 은비는 스물한 살 동갑내기입니다.

둘은 성인이 되어 혼자 살아갑니다. 취업을 하여 월급으로 생활합니다.

둘의 살림살이는 어떤가요?

아래 두 경우를 잘 살펴보고 각자의 생각을 정리하고 서로 이야기 해봅시다.

〈다솜이의 경우〉

수입	지출		
150만원	주거비	500,000원	원룸 월세
	식비	250,000원	집에선 가끔씩 만들어 먹는다 점심 후 테이크 아웃 커피 마시기
	통신비	100,000원	무제한 데이터, 통화는 마음껏 하기
	용돈	200,000원	친구들 자주 만나기
	의류비	100,000원	옷을 사요
	교통비	100,000원	택시 자주 이용
	보장성 보험	100,000원	많이 아플 때를 위한 준비
	저축	150,000원	매월 적금

〈은비의 경우〉

수입	지출		
150만원	주거비	250,000원	원룸 월세-친구와 나누어 내기
	식비	150,000원	아침과 저녁은 집에서 만들어 먹기
	외식비	50,000원	주1회로 정해놓기
	통신비	50,000원	필요한 통화만 한다
	용돈	100,000원	친구들과 정해놓고 만나요
	의류비	100,000원	옷을 사요
	교통비	70,000원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
	보장성 보험	30,000원	많이 아플 때를 위한 준비
	직업준비 저축	300,000원	이 다음의 직업준비를 위한 학습비 모으기
	경조사 저축	50,000원	친구 선후배 은인의 생일과 명절 챙기기
	여가비 저축	50,000원	여름철에 휴가를 가요
보증금 저축	300,000원	집의 월세보증금을 더 마련해요	

아래의 질문들을 읽으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보고 함께하는 친구들과 이야기 해봅시다.

1) 다솜이가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2) 은비가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3) 다솜이가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4) 은비가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5) 다솜이와 은비가 다른 점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6) 은비의 직업준비 저축은 왜 필요할까요?

7) 은비의 경조사 저축은 왜 필요할까요?

8) 은비의 여가비 저축은 왜 필요할까요?

9) 은비의 보증금 저축은 왜 필요할까요?



❖ 돈관리란?

내가 가진 것과 매달의 수입과 매달의 지출을 모두 따져보고 돈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수입을 위해 다음에 필요한 직업을 준비하는 것도 돈관리에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앞으로 생길 가족의 미래에 대한 계획도 함께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도 돈관리에서 필요합니다. 돈에 대한 관리이지만 넓혀서 생각해보면 가정의 경제에 대한 관리입니다.

❖ 돈관리는 어렵다?

누구나 돈문제 앞에서는 어려움을 느낍니다. 청소년이라고 해서 더 어렵고 어른이라고 해서 덜 어렵지는 않습니다. 돈이 많으면 많은대로 관리해야 할 것들이 많아져서 어렵다고 느끼고, 적으면 적은대로 쓸 돈이 모자라서 어렵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돈문제를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나만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나는 어디에 돈을 쓸 때 행복한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기준이 없이 돈을 쓰다보면 정작 내가 행복하기 위해 돈을 써야할 때 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 생기면 돈관리를 나 자신과 가족이 함께 해야 합니다. 나의 행복 못지않게 가족의 행복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가족 모두가 행복한 돈쓰기를 할 때 더욱 행복한 가정생활을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혼자서 해결하기보다는 가족이 대화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럴 때 가족들의 불만도 적어질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혼자 해결하기보다는 가족이 함께 해결할 때 훨씬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생님과 함께 정리해봅시다〉

☆ 다솜이와 은비가 다른 점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다솜이와 다르게 은비는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생각해보고 그 일들을 대비하는 점이 다릅니다. 즉, 은비는 일 년 동안 일어날 일들을 미리 생각하고 그 일들을 대비하여 매 달의 수입 중 일부를 저축하고 있습니다. 만약 다솜이에게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다솜이는 그 일들을 못하든지, 하게 된다면 빚을 지게 되고, 그 빚을 갚으려면 매달 하고 있던 것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 은비의 직업준비 저축은 왜 필요 할까요?

현재 직업의 수입과 일에 대한 만족감이 높지 않다면, 새로운 직업을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전문기술학원, 새로운 전문분야, 대학입학 등)가 필요할 수 있으며, 공부를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를 대비하여 지금부터 예정된 금액의 일부를 매달 저축한다면 자신이 원하는 때에 직업준비를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 은비의 경조사 저축은 왜 필요 할까요?

친구나 선후배, 은인의 생일과 명절 챙기기 등에는 돈이 필요합니다. 일 년에 한 번 혹은 몇 번씩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필요한 돈을 예상해서 정하고, 예상한 돈의 한 달 치를 그달의 수입에서 떼어 미리 저축해 놓는다면 신용카드나 할부 등 빚을 내서 일을 처리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 은비의 여가비 저축은 왜 필요 할까요?

우리는 매일 일을 하고 매일 소비를 합니다. 그중 우리의 감정이나 인간관계, 행복 등에 영향을 미치는 비용이 바로 여가비일 것입니다. 여가 계획을 세우고 그에 맞는 일정한 금액을 매 달 저축한다면 여가를 위해 빚을 내거나 무리하지 않아도 되고, 더 즐거운 마음으로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 은비의 보증금 저축은 왜 필요 할까요?

의식주 가운데 주거(사는 집)에 대한 준비는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주거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의 전세나 월세는 계속 오르는 편이므로, 그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미리 저축을 해 놓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나 혼자 이지만 가족이 생길 경우 더 넓은 집이 필요하고, 주거비용은 더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지금 대비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 2. 나는 내 돈의 주인인가?

우리는 매일 매일 일생동안 돈을 씁니다. 내 돈을 내가 쓴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과연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데에만 돈을 쓰는 것일까요? 과연 우리는 합리적인 소비를 하고 있을까요?

<소비심리학 이야기 1>

알뜰한 살림꾼 다솜이는 금요일 친구를 초대했고 맛있는 닭볶음탕을 만들어서 대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재료를 적어 재료를 낭비하지 않고 요리를 할 생각입니다. 다솜이는 요리의 레시피를 적어서 마트로 갑니다. 장바구니 목록에는 생닭 한 마리, 감자, 양파, 당근, 대파, 식용유, 고춧가루, 고추장 이렇게 8가지가 적혀져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마트로 향했고, 마트 입구에 들어서자 먹음직스러운 수박이 놓여 있습니다. 한 통에는 10,000원입니다. 반 통으로 잘라서 포장해놓은 것은 7,000원입니다.

다솜이는 어떤 수박을 샀을까요? 한 통을 산 것이 잘 한 걸까요? 반 통을 산 것이 잘 한 걸까요?
각자의 생각을 말해 봅시다.

반전

그런데 다솜이의 장바구니 목록에는 수박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니다.
단지 닭요리를 위한 재료 8가지만 적혀 있을 뿐입니다.
장바구니에 없던 수박을 사게 된 것입니다. 알뜰한 다솜이의 목표는 재료를 낭비하지 않고 요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한 통을 산 것도, 반 통을 산 것도 다솜이에게는 계획에 없던 돈을 쓰게된 것이지요. 한 통을 샀든지 반 통을 샀든지 다 손해 본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마트의 주인은 왜 수박을 반으로 잘라 놓았을까요?
각자의 생각을 말해봅시다.

<선생님과 함께 정리해봅시다>

☆ 손실회피원리

사람이 돈을 쓸 때 합리적으로 한다고 흔히들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뇌와 소비에 대한 마음은 의외로 불합리한 결정을 합니다. 수박 한 통과 반 통의 가격은 다르기 때문에 손해를 피하고 싶은 마음으로 돈 쓰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즉, 마트에 들어서서 수박을 보는 순간 반 통을 사면 손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장바구니 목록에 수박이 없다는 사실을 잠시 잊게 합니다. 결국 수박을 잘라 놓았을 때 사람들이 수박을 더 많이 사게 됩니다. 마트 주인의 입장에서선 매출이 올라가서 더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마트 주인은 손실회피원리를 잘 이용한 것입니다.

☆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솜이는 일주일에 한 번 시장을 보는데 만약 매주 손실회피원리에 걸려들어서 10,000원의 돈을 더 쓰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 달이면 40,000원 1년이면 480,000원... 결국 다솜이는 여름휴가 비용을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소비생리이야기 2>

멋쟁이 은비가 친구들을 만나러 나갔다가 옷가게에 걸려있는 분홍색 치마를 보았습니다. 치마의 가격은 3만원입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서 꼭 사고 싶었습니다. 몇 번을 망설이다 치마를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 치마를 입어보니 치마 색깔에 잘 어울리는 블라우스가 없습니다. 다음 주에 다솜이는 치마에 어울리는 블라우스를 5만원에 샀습니다.

그런데 새 치마와 블라우스에는 지금 신고 있는 구두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다솜이는 예쁜 새 구두를 샀습니다. 구두의 가격은 7만원입니다.

치마와 블라우스 새 구두를 신고 외출하려니 낡은 가방이 마음에 걸립니다. 다솜이는 새 가방을 샀습니다. 가방의 가격은 10만원 이었습니다.

새옷과 새가방을 산 다솜이는 기분이 좋아서 외출을 했고, 친구들을 만나 외식을 했습니다. 외식에도 돈이 든 것은 물론입니다.



다솜이가 한 돈쓰기에 대하여 각자의 생각을 말해 봅시다

한 달 사이에 예상에 없던 250,000원을 주고 새 치마와 블라우스, 구두, 가방을 모두 산 다솜이는 과연 기분이 좋기만 할까요?

다솜이는 치마와 블라우스와 구두와 핸드백을 모두 사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에게도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3. 소비 항목 익히기

우리가정은 어디에 얼마를 쓸까요?
아래 그림과 설명을 읽어보면서 알아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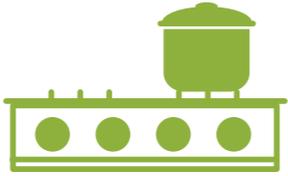
※ 주거비(월세,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

주거비(집에서 쓰는 돈)
25만원
전기, 수도, 가스, 관세비용 포함
월세비용 별도는 비용이 높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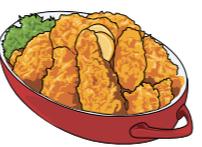


※ 식비(배달음식 포함)

식비(배달음식 포함)
40만원
레스토랑, 돈데슈를 이용하고, 배달음식은 가끔먹어요.





※ 통신비(핸드폰, 인터넷, 전화, 케이블TV 등)

핸드폰 / 인터넷
15만원
인터넷, 전화, 케이블TV를 이용하고,
돈 가족이 핸드폰을 사용해요.










※ 교통비(대중교통비, 차량유지비)

교통비(대중교통)
10만원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고,
비행기와 버스를 이용해요.






차량유지비(기름값, 택시비 등)
15만원
자동차와 관련된 세금, 기름값
수리비 등이 들어요.
필요한때만 차를 이용해요.






※ 교육비(사교육비, 공교육비)

사교육비(학원비등)
20만원
방과후 수업과 학습지를 주로 이용해도







공교육비(학교관련비용)
5만원
수업료, 소독이나 학원장비 등의 비용이요.

※ 가족용돈

가족용돈
20만원
가족 모두의 용돈







※ 의료비, 건강 유지비(의료보험, 병원비, 약값 등)

보장성 보험료
15만원
앞 등 위험한 질병과 사고에 대비해도







사회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10만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내요.



※ 금융비용

금융비용
20만원
대출금, 할부금 등의 이자와 원금이에요.





※ 여가비(문화생활, 외식)

여가비(문화생활) / 외식
10만원
 영화 책 등의 문화 생활을 해요.
 가끔 저녁을 밖에서 먹기도 해요.






※ 생활용품(의류, 신발, 가방 등)

의류 / 신발 / 가방 등
10만원
 필요한 옷과 신발을 사요.





※ 미용, 화장품

미용실 / 화장품
10만원
 가족 모두의 화장품과 미용실 비용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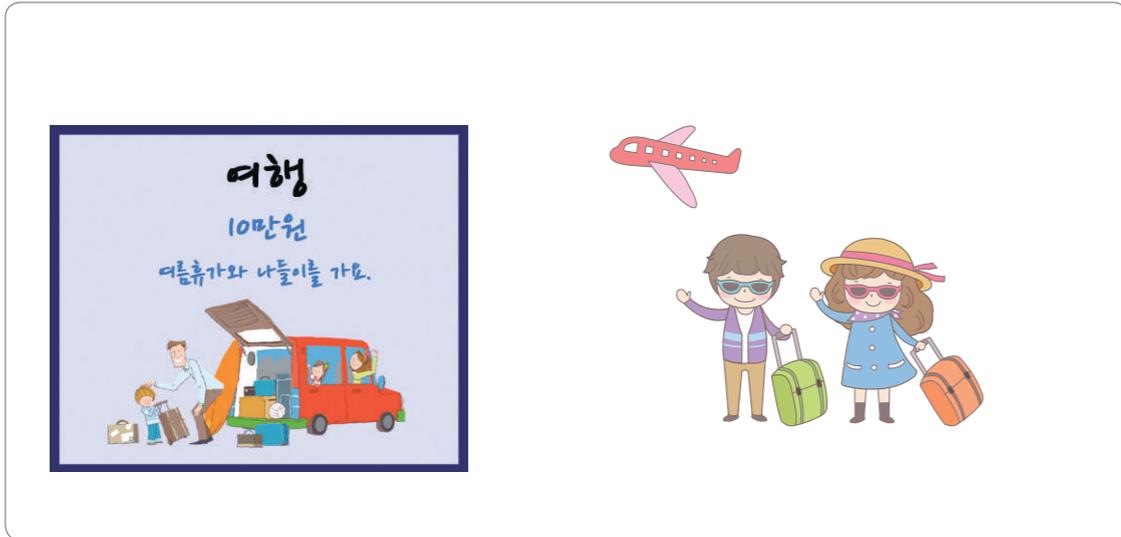

※ 경조사비, 회비 등

명절 / 생일 / 제사
10만원
 명절, 생일, 제사, 결혼자금, 조의금 등 모든 기념일을 챙겨요.





※ 여행



❖ 소비항목이란?

주거비에는 전기료, 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정수기 등을 대여하는 요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거비도 소비항목이고 수도요금도 소비항목입니다.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하는 일들의 이름 하나하나가 소비항목입니다.

앞의 소비항목 중에 매달 하게 되는 소비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앞의 소비항목 중에 일 년에 한 번 혹은 몇 번씩 하는 소비항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공과금이란 무엇일까요?



<선생님과 함께 정리해봅시다>

☆ 월지출???

우리가 매달 하게 되는 소비항목입니다
매달 한 번씩만 내는 전기료도 있는 반면, 여러 번 하는 식비도 있습니다.
월지출은 그달의 수입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연지출???

우리가 일 년에 한 번 혹은 몇 번씩 하는 소비항목들입니다.
일 년에 한 번씩만 지내는 생일도 있고, 일 년 중 여러 번 하는 의류비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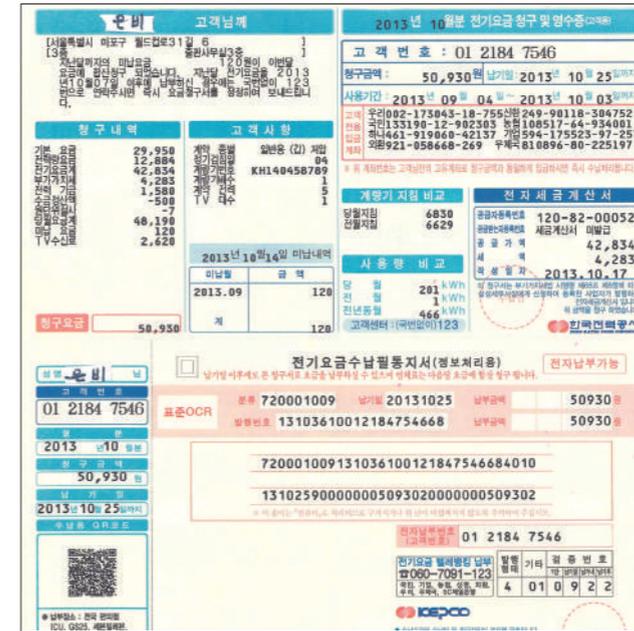
☆ 공과금 [公課金] ???

국가나 공공 단체가 국민에게 공적으로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도시가스 요금,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의 소비항목이 그 예입니다.
공과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나에게는 어떤 불편함이 생길까요?
예를 들어 일정기간 전기요금을 내지 않으면 더 이상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내지 않은 요금을 모두 낸 후에야 다시 전기를 공급받게 되겠죠?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전기, 수도 등 공과금은 매달 먼저 챙겨서 납부할 소비항목 들입니다.

☆ 공과금을 언제 어디에다 어떻게 내야 할까요???

공과금을 내는 날짜는 지정되어 있거나 본인이 직접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직접 가서 낼 수도 있고, 통장에서 자동으로 처리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처음 계약을 할 때에 공급기관과 약속하면 되는 것이고, 내는 방법과 날짜는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전화문이나 인터넷을 통한 문의와 처리가 가능합니다.

예) 전기요금 청구서 및 영수증



예) 도시가스 요금 영수증



수입보다 더 많이 지출하게 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예상해보고 서로 이야기 해봅시다.

수입범위 안에서 잘 소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각자의 생각을 이야기 해봅시다.

소비의 결정 원칙

- 선택(지금 소비한다): 나의 수입 안에서 지금 당장 해도 될 것들, 해야 할 것들을 말합니다. 공과금, 식비, 교통비, 용돈 등 매달 해야 할 것들이 포함될 것입니다. 매달 해야 할 것들이지만 그 액수는 조정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지연(나중에 소비한다): 지금 할 수 없지만 꼭 해야 할 것들이어서 준비가 필요한 것들을 말합니다. 옷을 사고 싶을 때 이달의 살림살이에 지장을 준다면 미루었다가 나중에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럴 경우 매달 저축을 했다가 나중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매달 해야 할 것들의 액수를 조정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탈락(소비하지 않는다): 지금의 나의 수입과 지출상황에 비추어 볼 때 할 수 없는 것들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지연(나중에 한다)을 잘 활용한다면 포기하는 항목이 줄어들 것입니다. 일정기간이 지나 수입이 늘어나거나, 선택과 지연이 조정되는 경우에도 포기하는 항목이 줄어들 것입니다.

결국...
 내가 나이 기준으로 선택하여 소비를 행복하게 하자는 것이 소비원칙의 목적입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소비하면, 수입의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훨씬 행복한 소비가 될 것입니다.



7. 나의 평생 미래설계

이제는 우리의 미래를 설계해 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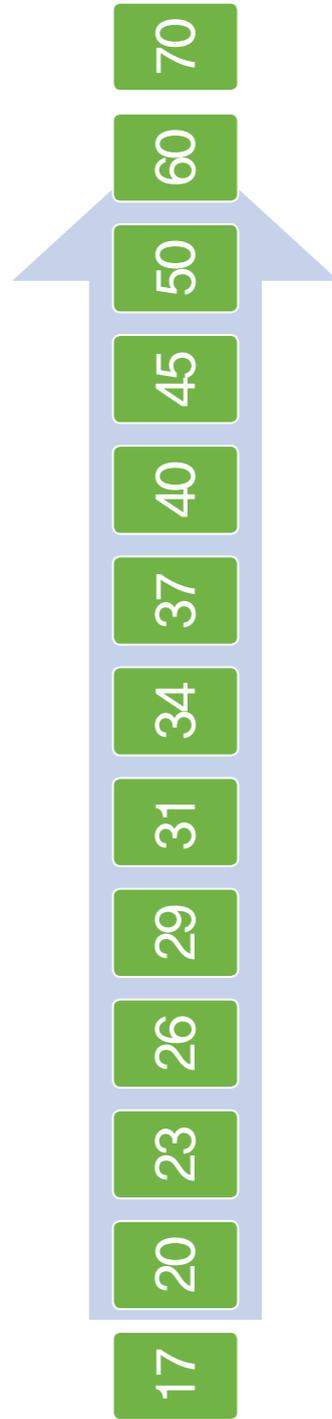
앞의 아바타 미래설계에서는 가상 인물의 삶을 그려보았습니다. 연예인의 삶이나 기업 CEO의 삶 등 실현 가능성이 적거나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펼쳐지는 경우도 많겠지만, 그래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바타 미래설계는 나의 미래 설계를 위한 워밍업이었으니까요.

이제부터 평소 생각했던 나의 미래나 지금 떠오른 나의 미래를 잘 정리하여 봅시다. 방법은 아바타 미래설계와 같습니다. 다만 모듬이 아니라 각자의 미래설계를 각자가 하는 것입니다.

다음의 그림과 포스트잇 등 준비물을 활용하여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하는 일을 구분하여 적어서 붙여 꾸며 봅시다.



하고 싶은 일



해야하는 일

8. 나의 중기 미래설계

이제는 미래의 범위를 좁혀, 앞으로 10년의 미래를 예측해 봅시다.

10년이라는 기간은 우리들이 자립을 해서 학업을 이어가거나, 취업을 하고, 주거의 독립을 하며,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예상되는 위험과 준비해야 할 일들을 미리 생각해 봄으로써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기대감으로 조금씩 바꾸어보는 과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요발생 상황〉

- 교육 : 대학진학 및 졸업, 자격증 따기, 자기만의 분야를 위한 공부 등
- 직업 : 아르바이트, 취업계획, 이직계획 등
- 소득 : 취업이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인한 소득 예측
- 주거 : 독립해서 살아가길 주거공간에 대한 계획(임대주택, 전세, 월세 등)
- 가족 : 결혼 등 본인의 가족계획에 대한 계획 등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을 적어봅니다. 언제, 어떤 일을 하고 싶다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그일 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한지를 예측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의 계획〉

다음의 그림을 활용하여 미래의 어느 때에 어떤 일을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 일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나의 계획과 실현 방법 등을 적어봅니다.

하고싶은 일										
--------	--	--	--	--	--	--	--	--	--	--

경과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연도										
주요 발생 상황	교육									
	직업									
	소득									
	주거									
	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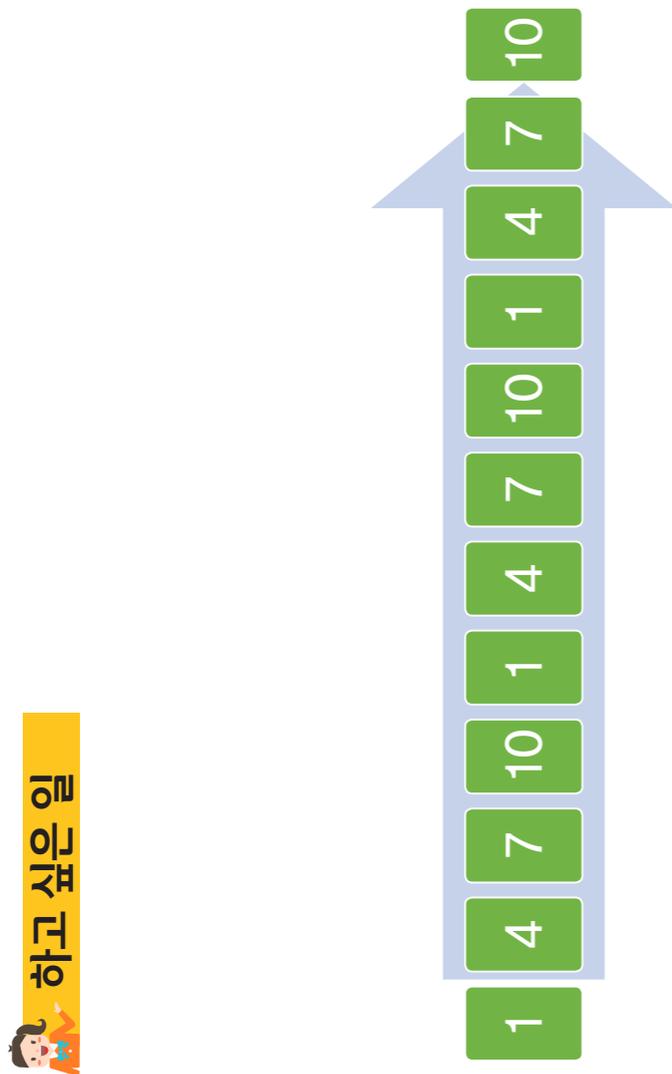
나의 계획									
-------	--	--	--	--	--	--	--	--	--

해야할 일									
-------	--	--	--	--	--	--	--	--	--

9. 나의 단기 미래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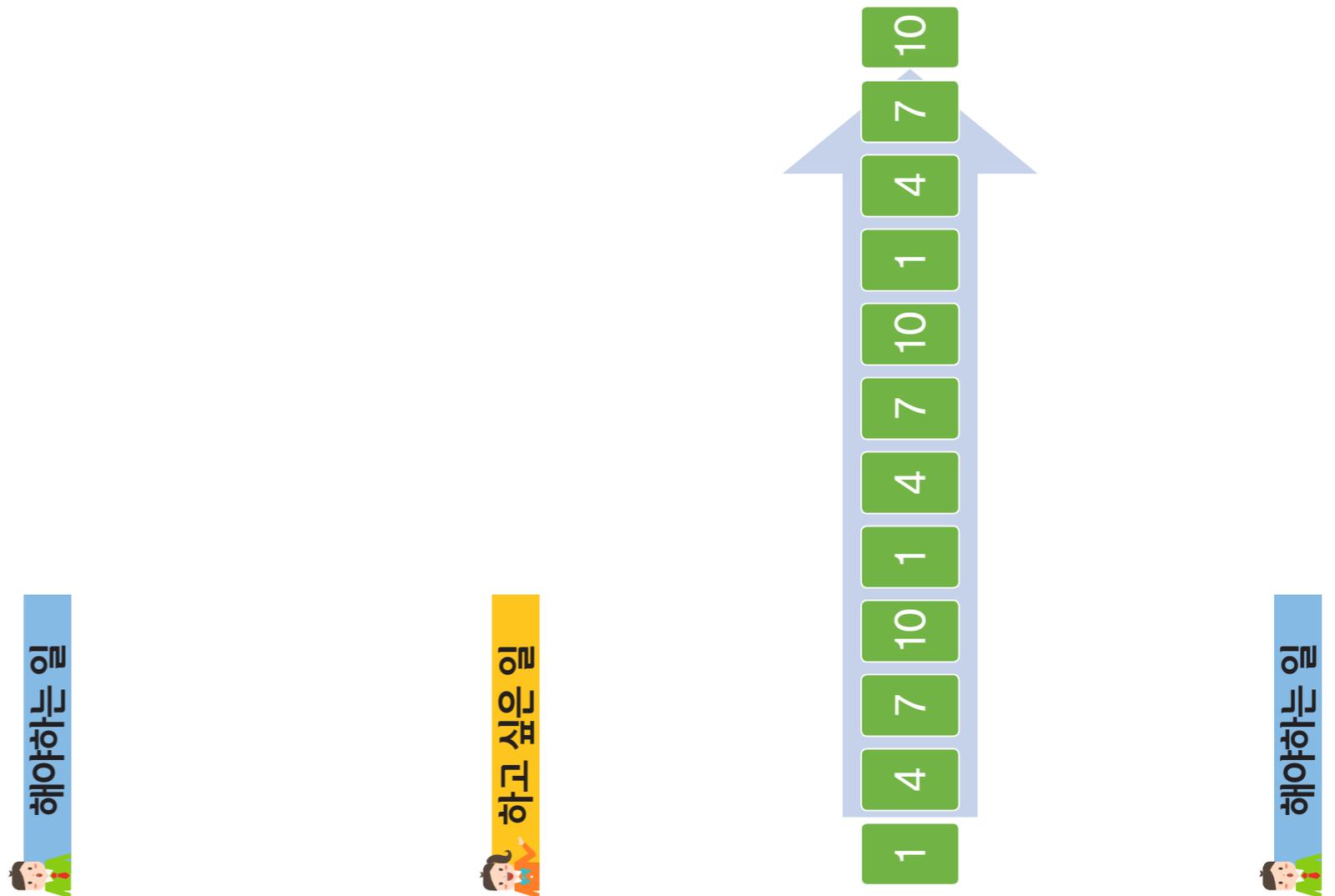
1) 단기 미래설계

다음은 우리가 20살이 된 이후 3년 동안 일어날 일들에 대한 계획입니다.
 아래 그림을 활용하여 꾸며 봅시다.
 1, 4, 7, 10은 1월, 4월, 7월, 10월(분기의 시작)을 의미 합니다.



2) 1년 미래설계

현재 여러분의 나이로 돌아옵시다.
 앞으로 해야 할 미래설계를 더욱 잘 알아가고 연습하고 경험하기 위하여 지금부터 시작하여 앞으로 일 년 안에 내게 일어날 일들은 계획해 보세요. 숫자들은 1개월 후, 2개월 후 ... 12개월 후의 나의 미래계획을 뜻합니다.



10. 통장 만들기

다솜이와 은비는 그 동안 은행에 갈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선생님께 용돈을 받아서 써왔고, 은행에 가지 않아도 크게 불편한 점은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는 자립을 준비하기 위해 통장거래, 계좌이체, 현금카드 사용 등 은행거래를 해야 할 필요가 생겼는데요. 막상 은행에 가려고 하니 무엇을 준비해서 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네요.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고 거래를 하려면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까요?

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학생증, 청소년증), 도장(서명도 가능해요), 1000원(현금카드/체크카드 발급 시) 단, 만 14세 이상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학생증에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하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도장이 아닌 서명으로 만들었다면, 창구에서 출금할 때마다 신분증 확인을 합니다. 현금카드/체크카드를 만들면 창구를 통하지 않고 현금지급기에서 출금이 가능하며,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카드가맹점에서 현금대신 바로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통장을 개설할 때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 신청을 하면, 어디서든 인터넷 또는 핸드폰으로 조회 및 이체를 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가장 큰 차이는 통장에서 돈이 인출되는 시점입니다. 체크카드는 결제하는 즉시 통장에서 인출이 되지만, 신용카드는 월 결제일에 일괄적으로 돈이 인출되지요. 한마디로 신용카드거래는 선구매 후결제의 외상거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할부나 현금서비스 등 사용자의 신용에 따른 부가서비스도 제공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무절제한 사용으로 인한 연체나 신용불량 등 경제적 문제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직불카드와 체크카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도 많지만, 차이는 있습니다. 신용카드와는 달리 결제 즉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다는 점에서 둘은 같지만, 결제망이 각각 다릅니다. 체크카드 결제는 각 신용카드사의 전산망을 통해 이뤄지지만, 직불카드는 금융결제원의 금융공동망에서 결제됩니다. 이 때문에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데 반해, 직불카드는 금융공동망 가동 시간인 오전 8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만 쓸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범위에도 차이가 있는데, 은행연합회 및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현재 체크카드는 신용카드 가맹점 206만 곳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직불카드 가맹점은 48만 곳에 지나지 않습니다. 은행별 중복된 곳을 빼면 25만 곳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금융권에선 추정하고 있지요.

(한겨레신문 2011-10-24 신용, 직불, 체크카드 뭐가 다를까? 참조)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의 차이>

구분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사용 가능한 곳	신용카드 가맹점 (206만)	직불카드 가맹점 (48만)	신용카드 가맹점 (206만)
이용 가능 시간	24시간	오전 8시~ 오후 11시 30분	24시간
할인, 포인트 등 부가서비스	제공	미제공	제공
현금서비스	가능	불가능	신용공여 있으면 가능
할부 구매	가능	불가능	불가능
이용 한도	신용 한도액	예금 잔액	예금 잔액
결제 방법	선구매 후결제	구매와 동시 결제	구매와 동시 결제
카드 발급	신용카드사 (경영 은행 포함)	은행	신용카드사 (경영 은행 포함), 저축은행 등
가맹점 수수료 평균 (2010년 말)	2.07%	1.00%	1.50%
이용 실적(2010년)	412조원	3000억원	51조원
소득공제	연소득 25%를 넘어서는 사용금액의 15% (300만원 한도)	연소득 25%를 넘어서는 사용금액의 30% (300만원 한도)	

자료 :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인터넷뱅킹이란?>

요즘 많이 사용하는 인터넷뱅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까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는 인터넷뱅킹을 다음과 같이 정의내립니다.

컴퓨터 통신망인 인터넷을 이용하여 은행 업무를 처리하는 금융 시스템.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개인 인증 확인을 거쳐 송금, 입출금 내역 확인, 계좌 생성, 자동 이체, 대출 등 다양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다. 인터넷 뱅킹을 하기 위해서는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보안을 위해 인증서를 생성하고 비밀번호 등을 확인해야 한다.

출처: Basic 중학생을 위한 기술·가정 용어사전, 2007.8.10, (주)신원문화사

☆ 이용방법

은행에서 인터넷뱅킹을 신청하면 ID, 안전(보안, Security)카드, 비밀번호를 만들어주는데, 이것을 가지고 인터넷의 은행 홈페이지에서 직접 공인인증서 발급을 받아서 이용을 하면 됩니다. 공인인증서는 인터넷뱅킹 신청 후 인터넷의 은행 홈페이지에서 3일 안에 등록해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 발급 순서

- ① 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센터 클릭
- ② 인증서 발급/재발급 클릭: ID, 주민번호 입력
- ③ 약관 동의: 안전 (보안, Security) 카드 등록
- ④ 자금이체 비밀번호 설정 - 인터넷뱅킹 내에서만 사용하는 비밀번호로 인터넷뱅킹 내 중요 금융 서비스 이용 시 사용됩니다. 통장(비밀번호) 또는 보안카드 유출 시,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금융사고 방지 목적입니다.
* 신규 등록 시 본인이 설정하게 됩니다. 추후 자금이체 비밀번호가 많이 사용되니, 숙지할 수 있는 번호로 등록하세요. 보통 6자리 입니다.
- ⑤ 개인정보 입력: (주소,전화번호 등)
- ⑥ 인증서 지정: 인증서 저장 위치 선택 (하드디스크, 핸드폰, usb) 후 완료

이렇게 인증서가 발급이 된 후 스마트폰으로 공인인증서 복사하기를 통해 어디에서든 스마트폰으로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각 은행의 스마트/모바일뱅킹 페이지 참조)

☆ 공인인증서의 종류

공인인증서의 종류는 발급대상에 따라 개인용과 법인용으로 나뉘며, 개인용과 법인용은 각각 용도에 따라 모든 용도에 사용 가능한 범용과 특정 용도에만 사용 가능한 용도제한용으로 나뉩니다. 개인 또는 사업자는 자신이 필요한 업무 용도에 적합한 공인인증서를 용도별로 각각 여러 개 발급 받아 해당 업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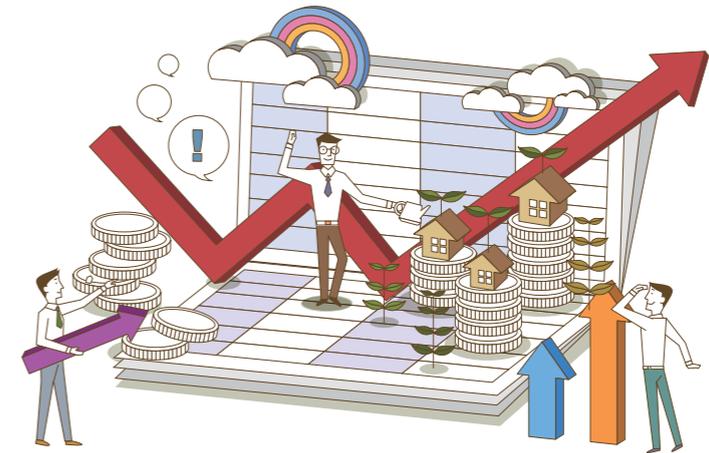
구분		용도	수수료	발급처
개인	범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모든 거래에서 사용(금융기관및정부민원업무포함)	4,400원	한국정보인증 등 공인인증기관
	용도제한용	- 은행 및 보험 - 신용카드 업무 - 정부 민원업무	-	해당 기관
법인 (사업자용)	범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모든 거래에서 사용 (금융기관 및 나라장터전자입찰 전자세금계산서, 정부민원업무 포함)	110,000원	한국정보인증 등 공인인증기관
	용도제한용	- 은행·신용카드용 - 금융투자용(증권·보험) - 보건복지전용 - 전자세금계산서 업무용 - 국세청 홈택스용 - 관세청통관/원산지증명용 등	-	해당 기관

☆ 공인인증서 이용분야

공인인증서는 은행거래 외에도 각종 신원증명, 전자민원, 온라인쇼핑, 대학 학사시스템이용 등 전자거래 전반에서 신원확인 및 전자서명수단으로 이용 중이며, 이용분야도 금융분야에서 비금융분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친구들과 은행에 가서 은행 각자 본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 봅시다〉

통장을 개설했다면, 선생님의 설명에 따라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을 신청해서 서로 계좌이체 연습을 해봅시다.



11. 나를 위한 보호장치

은비는 자립을 한 후 직장에 취업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 힘들게 일 한 후 첫 월급날이 다가왔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뭘 할지 이미 머릿속에서 계산이 다 되어 있는 상태였죠. 조심스럽게 첫 월급을 확인하는 순간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생각했던 금액과는 달리 8% 정도가 4대 보험이라는 명목으로 차감된 것이었습니다. ‘4대 보험이 도대체 뭐람?, 난 별로 혜택도 안볼 것 같은데, 그냥 월급으로 주면 안 되나?’ 은비는 불만스러웠습니다.

4대 보험은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월급에서 원천징수(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의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되는 것입니다. 4대 보험은 그냥 없어지는 세금일까요? 아래 내용을 살펴 보면서 4대 보험이 왜 필요한지 생각해 봅시다.

〈공공보험 (사회보험)〉

“국가가 관리하는 보험, 사회보험”

사회보험이란, 국민의 복지를 위해 국가에서 관리하는 보험입니다. 해당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고 국민 4대 보험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기업들은 직원들을 위해 4대 보험료를 함께 내주도록 되어 있는데,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구분 됩니다.

① 노후를 위해 가입하는 국민연금보험

연금보험은 국민연금이라고도 하는데,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보험료는 소득 수준에 따라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령(65세 이상), 장애로 일을 못하게 된 경우, 사망한 경우 (배우자나 자녀에게 지급) 등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② 의료비를 지원받는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은 의료보험이라고 불리는데,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보험입니다.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약제치료, 수술, 입원, 간호 등에 따른 의료비를 받을 수 있고, 수입과 재산의 정도에 따라 보험료는 달라집니다.

③ 생계유지를 위한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정리해고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실직되었을 때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동안 생계를 유지하고 일을 찾기 위한 경비를 실직 수당으로 주는 제도입니다. 만약 스스로 사표를 냈거나 일부러 일을 그만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④ 일하다가 다치면 받는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근로현장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해당 근로자와 유족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요양, 휴업, 장례, 유족, 간병 등에 보상을 받게 됩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보험 - 사고를 미리 대비하는 지혜 (시사논술 개념사전, 2010.5.14, (주)북이십일 아울북) 참조

흔히 접하는 예를 통해 공공보험을 알아볼까요?

우리가 감기에 걸려 병원치료를 받게 될 때 치료 후 약값을 포함해서 약 7,000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물론 수급권자일 경우는 훨씬 더 적은 금액을 부담하게 되죠. 우리가 낸 돈 7,000원은 보험자부담으로 총 병원비의 30~40% 수준이고, 국민건강보험에서 공단부담금으로 총 병원비의 60~70%를 부담하게 됩니다. 만일 국민건강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총 병원비 약 22,000원을 부담해야 되는 거죠. 이와 같이 4대 보험은 경제적 위험 (질병, 사고, 실직, 노령)을 보장해 주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민영보험(사적보험)〉

“공적보험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민영보험”

국가에서 실시하는 사회보험(공보험)과 대별되는 개념으로 사보험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00생명, 00화재보험을 말하는데, 대체로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관계는 상호보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사회보험(공보험)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국민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이 최저선 이상은 개인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민영보험(사보험)을 통해서 갖가지 위험의 발생으로부터 오는 경제타격을 완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민영보험은 크게 의료비를 보상해 주는 보장성보험과 노후의 연금마련, 교육자금 등 장기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저축성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① 보장성보험

사망·상해·입원·생존 등과 같이 사람의 생명과 관련하여 보험사고가 생겼을 때 피보험자에게 약속된 급부금을 제공하는 보험상품을 말합니다. 보장성보험은 보험료를 적게 거두어 보험금을 높게 지급하므로 중도해약이나 만기 시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보통 재해보장보험, 암보험, 건강생활보험 등이 보장성보험 상품에 속합니다.

② 저축성보험

저축성보험은 목돈 마련이나 노후생활자금을 위한 보험상품으로, 납입한 보험료보다 만기 시 지급되는 급부금이 더 많습니다. 저축성보험은 보험료 중 사업비와 보장에 필요한 부분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높은 이율로 적립하여 만기에 지급하므로 주택자금이나 결혼자금 등 목돈 마련에 효과적이며 여러 가지 보장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보장성보험 (시사경제용어사전, 2010.11, 대한민국정부)

〈보장성보험의 이해〉

직장 초년생 은비는 주변의 선배들로부터 이제 돈을 벌기 시작했으니 보험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보험에 관심을 갖게 되다보니 회사에 찾아오는 보험설계사는 A라는 상품을 가입하라고 하고, TV에서는 B상품이 좋다고 보험광고를 하고, 은행에서도 C라는 상품을 권유하는 게 아니겠어요. 선배들이 필요하다고 하니 하나 정도 들긴 들어야겠는데 어떤 상품이 좋을지 잘 모르겠어요. 고민 끝에 회사에 찾아오시는 설계사에게 여러 가지 보장도 받고 나중에 환급도 되는 월 보험료 20만원의 종신보험을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은비의 현재수입은 150만원입니다. 은비는 보험을 잘 가입한 것일까요? 아래의 설명을 보고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은비의 결정이 올바른 것이었는지 판단해 보아요.

☆ 보험이란?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일정한 위험에서 생기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다수의 경제주체가 협동하여 합리적으로 산정(算定)된 금액을 조달하고 지급하는 경제적 제도를 말합니다.

하지만 보험으로 이전시킬 수 있는 위험은 제한되어 있는데요, 어떠한 위험을 보험으로 이전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위험의 종류

위험을 손실의 많고 적음과 발생빈도의 많고 적음을 기준으로 크게 4종류로 나누어보겠습니다.

먼저 **손실이 크고 발생위험도 큰 위험**이 있습니다. 이 위험은 당연히 보험을 통해 보장을 받았으면 좋겠지만, 보험을 인수하는 회사입장에서는 손해가 크겠죠? 따라서 이러한 위험은 보험으로 이전시킬 수 없습니다. 피하는 것이 최선이겠죠.

예) 고혈압, 당뇨병환자의 질병보험 가입. 위험률이 높아 보험회사에서 인수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 **손실은 적는데 자주 발생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위험을 보험으로 이전하는 것이 맞을까요? 사실 이러한 위험은 손실이 크지 않기 때문에 보험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간단히 우리 돈으로 해결할 수도 있는 위험이라는 거죠.

예) 감기로 인한 치료비는 우리 돈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세 번째, **손실도 적고 발생빈도도 적은 위험**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무시해도 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손실은 크지만 발생빈도가 적은 위험이 있습니다. 발생빈도는 적어서 무시할 수도 있지만, 만약 발생이 된다면 손실이 매우 커서 가정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위험이 보험으로 이전(처리)하기에 적당한 위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 갑작스러운 사망, 교통사고, 장애, 암, 뇌출혈 등



출처 2011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만약에 보장성보험을 가입한다면〉

보험은 가입보다 유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보장의 크기보다는 보장의 범위가 중요하죠(고액암보다는 일반암). 효율적으로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만기환급형 보다는 순수보장형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멸되는 부분은 동일하기 때문에 차라리 차액을 저축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이죠. 병원비가 걱정된다면 의료실비보험(저렴한 단독형 실비 보험도 고려 가능)을 가입하는 편이 좋습니다. 보험료 수준은 미혼인 경우 수입의 5% 미만으로, 기혼인 경우 수입의 8% 미만으로 합니다.

〈저축성보험의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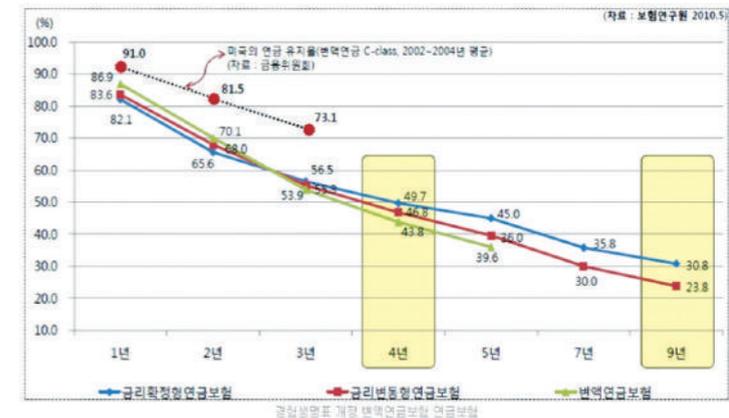
직장초년생 은비에게 또 급여일이 돌아왔네요. 이번 달에는 저축을 추가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떤 저축 상품이 좋을지 알아보고 있던 차에 '비과세 복리 상품'을 알게 되었습니다. 10년 유지 시 15.4%인 이자소득세가 면제, 일반 저축보다 높은 이자, 2년 정도만 납입하면 자유로운 납입이 가능하며, 중간에 돈이 필요하면 인출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 어떤 상품인지 호기심이 더해 갔습니다. 저축과 혼동하기 쉬운 저축성 보험에 대해 알아보까요?

☆ 저축성보험의 장단점

- 장점: 10년 유지 시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시중금리보다 금리가 1% 정도 높다.
보장이 추가되어 각종 위험에 대비할 수도 있다.
- 단점: 제시 금리는 상대적으로 높으나, 사업비를 감안하면 10년 경과 시 적금과 비슷
10년 이상 유지해야하는 장기상품
중도 해지할 경우 원금손실

☆ 통계에 따르면 저축성보험의 10년 유지율은 20%에 불과합니다.

자립 후 주택마련, 학자금 등 단기자금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직장인 된 후 초기부터 장기상품을 가입한 후, 중도해지를 하게 되어 손해의 위험이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저축상품의 가입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12. 돈관리의 또 다른 모습

어엿한 직장인인 은비는 주변 선배들처럼 신용카드를 만들고 싶어졌습니다. 고급스럽게 생긴 카드를 내며 결제하는 것이 멋있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돈이 부족해 망설여지는 물건도 일단 쉽게 구입할 수 있고, 할부를 이용할 경우 비싼 명품도 부담 없이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신용카드의 장단점은 무엇일까요? 선생님이나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해봅시다.

〈신용카드의 장점〉

〈신용카드의 단점〉

〈신용카드의 기본상식〉

- 연회비 :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으로, 1년에 1번 지불하게 됩니다. 연회비의 금액은 부가 서비스에 따라 달라지는데 혜택이 많을수록 연회비도 많겠죠.
- 할부수수료 : 할부 거래를 할 때 지불하는 비용이며, 각 카드사마다 기준 수수료율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수료율은 신용 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되지만, 3개월 이상일 경우 10%이상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무이자할부 행사를 하게 되면 10%이상의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어서 과잉소비가 일어나기도 하지요.
- 현금서비스 : 카드한도 내에 현금서비스 한도가 별도로 설정이 되는데, 카드만 있으면 언제든지 한도 내에서 인출이 가능한 편리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자가 평균 21.5%로 매우 높은 편이고, 현금서비스 이용은 급전이 필요한 상황으로 간주되어 신용등급하락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 리볼빙서비스 : 고객이 사용한 금액 중 일정 비율만 결제되면, 나머지 금액은 대출 형태로 전환(리볼빙)되어 결제가 자동 연장되는 서비스입니다. 리볼빙으로 전환된 금액에 대해서는 평균 22.9%의 높은 이자가 부과됩니다.

〈신용카드 적절히 사용하기〉

칼은 위험하지만 유용하게 쓰일 때가 매우 많지요. 마찬가지로, 신용카드를 가지게 됨으로 자칫 과소비와 그에 따른 여러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나에게 맞게 적절하게 사용하면 좀 더 규모 있는 살림살이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자신의 소비 패턴과 소득을 먼저 생각합시다.

- 소득은 규칙적으로 들어옵니까, 아니면 불규칙적입니까?
 - 소득 중 어느 정도를 소비합니까?
 - 주로 어디에 소비합니까?
 - 소비 지출에 대한 통제 능력이 있습니까?
 - 소비지출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 소득이 불규칙적이거나, 지출 통제 능력이 부족하면 신용카드를 발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자신의 소득에 근거해서 미리 신용 카드 사용 한도를 정합시다.

⇒ 한 달 소득 중 25% 이상을 부채 상환에 쓰면 더 이상의 저축은 불가능합니다.

만일 신용 카드 이외의 할부금이나 이자를 내야 한다면 신용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훨씬 적어질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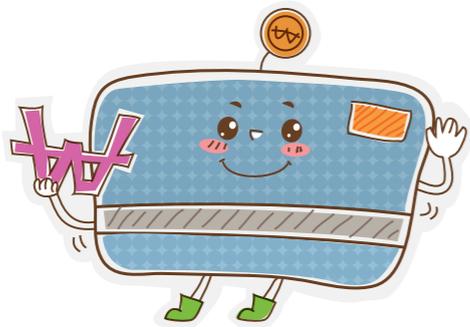
☆ 자신의 신용 한도 설정해 보기

- 자신의 월 신용 한도액
= 월 평균 세후 소득 × 0.25 = ()만원 × 0.25 = ()만원
- 자신의 월 신용 카드 사용 한도액
= 월 신용 한도액 - 다른 부채의 월 상환액
= ()만원 - ()만원 = ()만원

☆ 신용카드를 어떤 용도로 이용할지 생각하여 자신에게 알맞은 신용카드를 찾아봅시다.

- 현금과 같이 지불 수단으로만 이용할 때 : 연회비가 싸고 부가 서비스가 다양한 카드를 선택
- 현금 서비스를 받는 것이 중요할 때 : 현금 서비스 수수료가 낮은 카드를 선택
- 무이자 할부나 포인트 적립과 같은 부가 서비스가 더 중요할 때 : 다양한 부가 서비스 기능을 가진 카드를 선택
- 해외에서도 이용할 때 : 해외브랜드(비자, 마스터 등)카드를 선택

신용카드를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용에 가장 나쁜 영향을 미치는 ‘연체’〉

약속한 날짜에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것을 연체라고 합니다. 신용평가회사와 금융회사는 일반적으로 아래의 표와 같이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 연체만으로도 신용을 잃기는 쉬운 반면, 연체액을 전부 상환하고도 신용등급을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연체를 하지 않는 것은 신용관리의 기본입니다.

연체일수	5일 이후	30일 이내	89일 이내	90일 이후
분류	신용평점 반영	단기연체	장기연체	채무불이행 등록

〈만약 연체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신용 카드 대금이나 대출 이자를 연체하면 연체 이자까지 포함되어 다음 달의 부담으로 작용됩니다. 즉, 연체 유예 기간이 경과하면 이자 미납분이 아닌, 대출 원금 잔액에 대한 연체 이자가 징수됩니다. 결국 1회의 연체가 지속적인 연체로 발전될 수 있는 것이지요.

대출금을 오랫동안 연체하면 은행연합회에서 종합 관리하는 개인 신용 정보에 불량 규제로 등록됩니다. 연체로 인한 신용 불량자 등록은 3개월 이상 연체하면 가능합니다. 신용 불량 등록일 1개월 전까지 신용불량정보 등록사실을 통보해 주므로 신용 불량자 예정 통지를 받았을 때, 최대한 빨리 연체금을 변제하면 신용 불량자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또한 신용 불량자로 등록되어도 등록 후 90일 이내에 변제하면 기록이 보존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빨리 연체금을 변제해야 합니다.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되면?〉

연체로 인해 신용 불량자로 등록되면 해당 금융 기관 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 기관과의 거래도 규제되고 상품의 할부 구매도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거래뿐만 아니라 신용 카드 사용 정지 등 신용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요. 또한 연체로 인해 불량 규제가 되면 최고 5년까지 전산 관리되어 사회에서 그 기간 동안 신용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신용 불량자로 등록되면 금융 거래나 상거래 뿐 아니라 직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선 급여와 퇴직금 등에 가압류 등 법적 조치가 따르고, 직장을 옮겨 새로운 직장에 취업해도 신용 불량 규제 사실이 나타나 취업이 안될 수도 있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곧 사회에서 활동이 거의 불가능해 질 수 있습니다. 신용도의 하락은 이처럼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작은 부주의로 인생을 망치는 일은 없도록 합니다.